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태인초서 열려

정읍시는 오는 3월 1일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애국선열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3·1절 기념탑에서 3.1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헌화와 참배를 진행한다.

이후 태인초등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추사, 3.1절 기화공연, 3.1절 노래제창, 민세삼향 등이 진행되며,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는 3.1절을 주제로 한 “봉선화” 무용극을 준비하고, 손 태극기 배부 및 태극기 게양 캠페인, 무료 차나눔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8개 부문 후보자 추천 접수

부안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2025년 부안군민대상 후보자를 오는 3월 14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선발 분야는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애향, 명예군민 등 8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한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주이며 수상 후보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부안군청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후보자 자격은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안군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있는 고을, 정읍’ 비전 설정

정읍시가 2040년까지의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정읍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읍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으로 수립됐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600인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의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 있는 고을, 정읍’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관광 휴양도시 △첨단산업 경제도시 △미래 농생명도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활력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도시 공간구조는 1도심 4지역중심 2특화핵으로 설정됐다. 신태인(농업거점), 입암(산업거점), 고부(역사문화관광거점), 칠보(관광휴양거점)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정읍첨단(첨단산업거점)과 내장산(사계절관광거점)을 특화핵으로 조성해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 1개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 23개 소생활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공업용지가 화예정용지 20%를 확보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신구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첨단산업 경제도시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조만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도의원·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예산 확보 · 현안해결 적극협력’

고창군 · 민주당 지역위 정책협의회, 국가예산 확보 등 논의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2025년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조만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도의원·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삼성전자의 신활력산단 부지 매입 및 용평리조트의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 매입, 명사산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000억원 투자유치, 신활력산단 첨단기법 3개사 1900억 투자유치, 외국인근로자 정책 전국 선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과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를 돌아보며 축하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예산의 경우, 국·도정 핵심과제를 분석해 논리를 보강해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단체부터 국화단체까지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고창군 최대 현안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관련,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만큼,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인 설명과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정치적 변질”

부안군, 19개 어촌계협의회 · 선주협회 · 어업인 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 열어

부안군 19개 어촌계협의회, 선주협회, 어업인 연합회가 25일 부안수협 4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부안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토론회가 반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정치적 공세로 군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됐다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해상풍력과 양육점 문제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를 대변하는 어민 위주의 위원회 대표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서남권 2.5GW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 당시 부안군 19개 어업인연합회, 부안수협, 군 선주협회 및 어민들이 6년 동안 강력히 반발했을 때 부안군민 누구 하나 어민들의 편에서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제 개발이 진행되자 반대 목소리만 내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제 개발이 진행되자 반대 목소리만 내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노진룡 · 노병희 지사 묘소 참배

심덕섭 고창군수가 25일 오전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인 노진룡 · 노병희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묘소에 태극기를 걸고 헌화와 참배의 시간을 갖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선열들의 업적을 되새겼다.



노진룡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사에 따라 전북감독부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과 격문 살포 등 항일 활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노병희 지사는 항일투쟁에 나섰던 최약한이 대마도로 유배되었을 당시, 한의사 자격으로 대마도로 건너가 치료에 전념하며 최약한이 별세한 후에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의 공로는 1990년에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국장이 각각 추서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첨단과학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며 입주 기업들의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년 단위로 지정된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한번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생산한 제품은 2년간 제



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자금 융자,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서남권 중심부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KTX와 GRT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광주·전주 등 주요 도시와도 고속도로를 통해 40분 이내로 연결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